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4. 2. 21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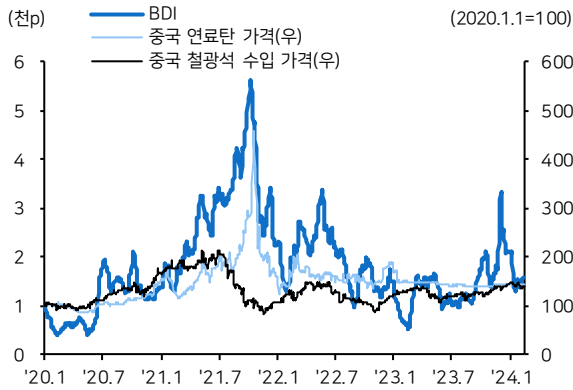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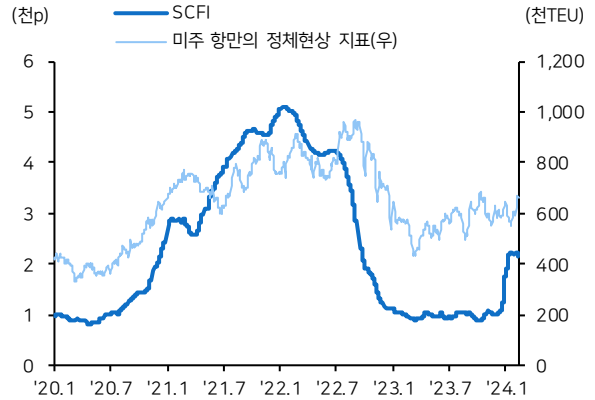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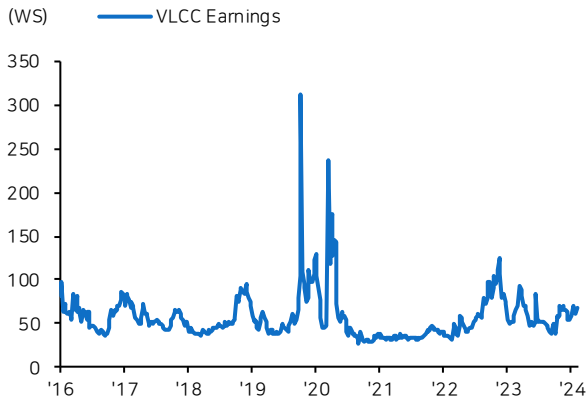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32.0p(+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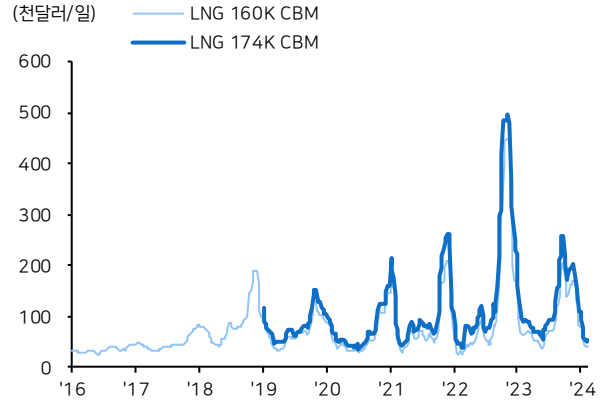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66.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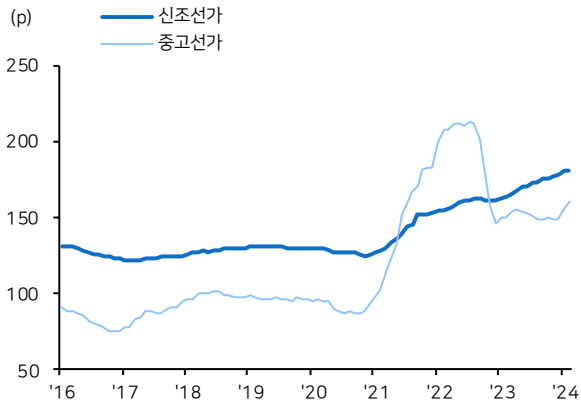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1.7p(+23.4p WoW)



LNG Spot 운임 40.0천달러(- WoW)
55.3천달러(+2.8p WoW)



신조선가 181.3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77.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Greek shipowner Evalend adds VLAC newbuildings to \$2.1bn orderbook

TotalEnergies가 또다시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LNG선 17척 발주 계약을 연기했다고 보도됨. 200억달러규모의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약 3년간 불가항력 상태를 유지했는데, 안보 상황 개선으로 곧 재개될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Cabo Delgado 지역 갈등으로 TotalEnergies는 한국조선사에 예약한 LNG선 17척 발주를 연기했다고 언급됨. 현대삼호중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8척 슬롯을 맡았는데, 인도일자가 2028~29년으로 여섯 번째 연기되었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tinyurl.com/4tm53ark>)

Greek shipowner Evalend adds VLAC newbuildings to \$2.1bn orderbook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VLAC 2척은 Evalend Shipping이 발주한 선박으로 보도됨. 91,000CBM급 선박 2척으로 2027년 2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척당 1.21억달러 수준에 계약됨. (Tradewinds) (<http://tinyurl.com/2yxzeyb9>)

Houthi attacks drive VLCC rally ahead of schedule. Now owners need Opec+ to deliver

VLCC 운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곧 발표될 OPEC+의 생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도됨. OPEC+ 원유 생산량은 하반기에는 증가할 전망으로 언급됨. BRS그룹은 홍해 우회뿐만 아니라 중동유과 브렌트유의 가격차이로 중동유가 아시아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일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tinyurl.com/5d5eaznx>)

Four contracting heavyweights lock horns in battle for huge Qatar gas project

최대 4개 업체가 QatarEnergy의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NFPS) 프로젝트 EPCI 입찰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됨. EPCI 3로 불리는 Saipem, COOEC, McDermott, L&T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알려짐. 2024년 중순쯤 입찰 발표가 날 수 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tinyurl.com/3thjnhdx>)

India a 'continued bright spot' for steel production, says BHP

중국 수요 부진에 철광석 수출 시장 내 인도의 중요도는 커질 전망으로 보도됨. 2023년 인도 철강 생산량은 1.4억톤으로 약 12% 증가했고, 2024년에도 큰 증가세가 나타날 전망으로 언급됨.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억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tinyurl.com/5czwwtms>)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 본격화...매각주간사, LCC 접촉 분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주간사 UBS는 최근 인수 후보군의 대상으로 투자설명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배포했다고 언급됨. 금명간 입찰 제안을 배포할 계획임. 후보군으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4곳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짐. 대한항공은 늦어도 오는 10월전까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매각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http://tinyurl.com/bdf4khm2>)